

韓國女子大學生의 家事能力에 關한 研究

A Study of the Abilities of House-keeping of Korean Female Students

目 次	
I. 序 論	2) 道 具
II. 問 題	3) 調 查
A. 理論的 背景	4) 處理方法
B. 問題設定	B. 本研究的 制限點
III. 方 法	IV. 結果 및 解釋
A. 調查方法	V. 結 論
1) 標 本	

淑明女子大學校 家政大學
College of Home economics
Suk Myung Woman's University
專任講師 朴 仁 德
Instructor Pak, In Duk

Summary

A Study of the Abilities of House-keeping of Korean Female Students.

We tend to have much trouble in doing house-keeping with the lack of practical experiences in our daily life in this age of information because we learn more things by vicarious experiences with the help of communication media such as radio, T.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house-keeping and teaching of home economics which are essential to female students who will become good house-wives and good members of families.

In this thesis, the fundamental items of every day life such as food, costume, and home management were made out in a questionnaire with a view to evaluating the abilities of students' house keepig by these data.

A random sample was taken composing of juniors and seniors with the sample size, n=581, out of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Korea; i.e., Yonsei Univ., Korea Univ., Ewha Univ., Sukmyong Univ., Sung Shim Womans' College (at choon chun), Duk Sung Womans' College, etc. It is to be noted that home economics majors were excluded.

<Respon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Out of the total 25 fundamental items about food the average ability in the case of "I can" is only 11 items, "I have experience" 7 items, and "I have no experience" 7 items.
2. Out of the total 20 fundamental items about costume the average ability, in the case of "I can" is 4 items, and "I have experience" 8 items, and "I have no experience" 8 items.
3. Out of the total 20 fundamental items about home management, the average ability, in the case of "I can" is 5-items. "I have experience" 8-items, and "I have no experience" 6-items

<Conclus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on the basis of the above survey:

- a) On the whole students are poorest at practical house-keeping.
- b)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female students have little experience to participate in practical house keeping every daily life
- c) Female students are apt to have the self-confidence that they can carry on the house-keeping well.
- d) One may emphasize the point which tends to be neglected in home-education: each house wife should have the ability of practical house-keeping, mutual understanding among family members, a sense of responsibility, cooperation and services as a good member of family.

I. 序 論

社會의 近代化 및 都市化過程에서 各種의 機能集團이 發達하므로써 家庭의 機能이 減小하였으나, 反面 都市化 近代化過程에서 家族이 充足 하여야 할 生活慾求 내지 生活上의 必要性이 量的으로나 質에 있어서도 顯著히 增加하였다. 過去에는 人間의 生活慾求 乃至 生

活上의 必要性은 未分化되어 單純素朴하였으므로 그 充足은 거의 家庭內에서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複雜多岐하게 되었으므로, 家庭以外의 機能集團에 移讓하는 한편, 家庭內에서 充足해야 할 比率도 增大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家庭의 機能이 相對的으로는 減小하였지만, 絶對的으로는 오히려 增大되었다. 이러한 現實에서 家庭을 바람직하게 經營하기란 高度化되고 多樣한 能力이 必要한 것이다. 흔히 家庭經營은 女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莫然한 期待와 自信感마저 가지고 있을 뿐더러, 더욱이, 家庭의 일이 機械化 및 電化되므로서 모두 解決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傾向마저 있으며, 家庭에서도 家庭人으로서의 家事能力, 相互理解, 責任, 分擔, 協力, 奉仕等に 社會性을 기르는 面等의 家庭教育을 等閑히 하며, 이 結果 實際로 빚어지는 家庭問題가 相當數에 達한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는 理論과 知識을 모두 갖추고 있는 女大生의 家庭人으로서의 家庭에 對한 態도와 基本的 家事能力에 關한 實際를 調查研究하므로서, 앞으로의 家庭生活에서 當面하게 될 具體的인 問題를 깊이 探索할 수 있는 豫備知識을 얻어 將次의 女性教育에 參與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Ⅱ. 問 題

A. 理論的 背景

家庭이 人間의 休憩場所로서, 또한 勞動力再生産의 場所로서, 나아가서는 社會를 構築하는 基本單位로서 面目을 發揮하려면 家庭生活에 있어서 精神的인 面에 있어서나 技術的인 面에서 그 必要性을 充足시킬 條件이 具備되어야 한다”.

그러나, 過去에는 技術的인 面만을 重要視하여 家庭經營을 單純한 經驗을 通하여 習得하므로서, 解決될 수 있는 置重된 생각을 하였으며, 近來에는 너무 理論的인 面에 置重하여 빚어지는 問題도 적지 않다. 勿論, “家庭管理의 精神이나, 方法에 있어서도 때르는 時代的인 特徵을 發揮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恒時 社會의 變遷을 注視하며, 또 歷史的 考察을 게을리하지 말고, 보다 좋은 合理的인 方法을 發見하도록 부지런히 努力하여야 한다”.

家事勞動의 意義: 사람들은 家庭에 依하여 生命력을 維持發展시키며, 家庭에서 休息을 求한다. 家庭은 사람들에게 休養을 주며, 生活意慾을 일으키는 場所이며, 家庭에서 만들어진 生命력이 勞動을 通하여 家庭에 收入을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循環속에 家族의 生命력의 擴大 再生産을 爲하여 行하여지는 勞動을 家事勞動이라고 한다.

以上の 것을 具體的으로 論하면, 自己의 家庭에 對하여, 現在에서 將來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生活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따라서 家庭生活 全般을 管理運營하는 頭腦勞動과

이 法定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調理, 淸掃, 衣類의 整理, 裁縫, 育兒, 養老等과 같이 每日 每日 反復하여 行하여지는 肉體勞動을 말한다.

肉體勞動은 將來 質的인 變化는 있다 하더라도 行爲 그 自體는 決코 없어지지 않으며, 反復되는 勞動으로서, 今後에도 큰 比重을 차지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經濟力이 增大하면, 家事勞動은 더 한층 社會化되어 社會意識의 向上에 依하여 共同化라는 方向과 機械 및 技術의 導入에 依하여 다시 時間과 勞力이 節約되어질 것은 據論의 餘地가 없다²⁾.

家庭主婦와 家事勞動: 資本主義社會가 確立될 때까지는, 모든 生産이 家庭內에서 行하여져 家事勞動은 生活의 手段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生産은 漸次 分業化되고, 社會化되어 家事勞動의 輕減에도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現在, 職業으로서 社會化되지 않은 것이 家事勞動이라고 한다. 家族은 主婦의 家事勞動에 依하여 疲勞를 回復할 수 있으나, 그 勞動의 提供者인 主婦自身도 家事勞動에 依한 疲勞의 回復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

主婦는 家事勞動에 依하여 疲勞하며, 家事勞動에 依하여 그것을 回復하는 矛盾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 各家庭에는 그 家庭의 獨特한 生活方式이 있어 家事勞動을 어느 程度까지 減하여야 할지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籠山氏는 “家事勞動은 언제든지 家事勞動을 하는 者의 休養과 均衡이 保存되는 限度內에 輕減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또, “Three-eight Time” 卽, 睡眠 8時間, 自由時間 8時間, 家事勞動 8時間으로 規定되었으나, 今後 漸次 家事勞動의 機械化, 職業化가 많아지고, 合理的인 生活樣式을 取함에 따라서 더욱 短時間內에 效率 높은 家事勞動이 可能해진다²⁾.

勞動의 種類: 勞動은 그것이 行하여지는 目的에 따라서 다음 세가지로 分類된다.

a) 賃勞動: 賃金勞動者가 賃金を 받기 위하여 하는 勞動과, 俸給生活者가 俸給을 받기 위하여 行하는 勞動

b) 自家勞動과 家庭勞動: 自營業者가 事業經營을 爲하여 行하는 勞動과 그의 家族이 家業을 爲하여 行하는 勞動

이 경우에는, 勞動의 代價는 그의 事業利益 속에 屬한다.

c) 家事勞動: 主로 主婦가 家庭에서 行하는 勞動, 그의 代價는 전혀 無償이다³⁾.

家事勞動의 分類: 家庭을 建設하며, 維持하고, 運營하기 위하여 家事勞動이 行하여진다. 家事勞動은 職業勞動과 같이 專門化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가지 일이 包含된다. 이것을 分類하는 것은, 家事を 合理的으로 行하는데 必要하다. 家事에는 管理的인 것과 技術的인 것 單純한 筋肉勞動으로 分類할 수 있다. 管理的인 것에는 生活의 計劃에 關한 것. 卽 家庭經濟의 豫算樹立, 生活時間의 設計와 衣食住 및 其他의 生活의 運營計劃 등이 包含되며 또 必要한 物資와 서비스의 購入, 家計簿의 記入, 家族關係의 調整과 家族에 對한 指導 等이다.

技術을 要하는 家事에는 兒童의 保育 食品의 調理, 衣類 製調 等이며, 單純한 筋肉勞動에

는 家族에의 서비스에 隨伴하는 清掃, 洗濯, 설거지 등이 있다⁴⁾.

家庭에서 時間과 勞働의 管理: Frederick Taylor가 始作한 時間의 研究는 일의 最善의 方法의 決定과 標準化이며 動作研究를 通하여 最善의 方法, 最小의 時間을 求하는 것이며, 作業의 標準化와 作業環境의 改善에 重點을 두고 있다. 最近에는 人間의 特性을 살려가면서, 個個의 作業을 하나의 組織속에 짜맞추어 處理하는 人間工學, 組織工學의 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社會情勢 속에서도 時間과 勞力의 合理的인 活用이 檢討되어야 한다. 그러나, 家庭에 있어 時間과 勞力의 管理는 企業에 있어서의 時間과 勞力의 管理와는 全히 같을 必要가 없다. 勿論, 時間과 勞力의 管理에는 經濟성은 當然히 追求될 問題이나 그의 根底에는 家庭의 家庭生活에 對한 滿足이 있어야 하므로 各己의 家庭의 個性을 살린 生活 속의 能率을 생각하여 最善의 方法, 最小의 時間을 研究할 必要가 있다.

企業을 通하여 機械化되어가는 人間性이 家庭에서 充分히 回復되도록 時間과 勞力의 使用法을 생각하여야 한다²⁾.

Nickel과 Dorsey는 效果的인 「家庭管理者의 資質로서는 (1) 知能, (2) 熱意, (3) 人間性의 理解, (4) 想像力, (5) 適用力, (6) 自己管理, (7) 忍耐力, (8) 判斷力, (9) 感情의 管理」⁵⁾ 등이 必要하다고 하였으며, 家庭生活에 있어서 主된 「管理의 責任은 (1) 家庭의 哲學을 確立, (2) 家庭管理上의 目的을 展開시키는 것, (3) 有益하고 滿足한 人間關係를 이룩하는 것, (4) 賢明하게 時間과 Energy를 使用하는 것, (5) 家族의 最善의 便宜를 爲하여 住宅問題를 解決하는 것, (6) 家具設備 및 施設을 갖추는 것, (7) 家庭을 效率의으로 運營하는 것, (8) 家族들의 健康을 保護하고 增進하는 것, (9) 家族의 教育的, 社會的 發達을 指導하는 일, (10) 家族을 위하여 食生活과 衣生活을 마련하는 것, (11) 家族과 家庭에 影響을 미치는 地域社會活動에 參與하는 일, (12) 家族의 經濟的 要求를 調節하는 것等이다」⁵⁾.

또한, 家庭의 複雜性 때문에 家庭管理者는 多樣한 能力이 있어야만 그 機能을 감당할 수 있다.

「(1) 家族의 計劃樹立者로서의 管理者

(2) 意思決定者로서의 管理者

(3) 家事指導者로서의 管理者

(4) 教師의 立場에서의 管理者

(5) Energy의 供給者로서의 管理者

(6) 評價者로서의 管理者

(7) 消費者와 購買者로서에 管理者

(8) 調整的 役割의 管理者

等の 多樣한 機能을 遂行해 나아가야 하며, 同時에 各 家庭은 個性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人間性의 理解와 人間發達의 問題를 隨伴해야 한다. 有能한 家庭管理者는

어느 정도의 技術을 가지고 이 모든 責任을 實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⁹⁾.

以上の 理論에서와 같이 家庭經營이란 複雜多樣하며, 高度한 管理能力 못지 않게 技術과 單純한 筋肉勞動이 同時に 必要하며, 이 兩面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管理能力이 完全히 發揮될 수 있다.

B. 問題設定

家庭經營者로서의 多様な 役割을 장차 담당할 女大生들의 家庭경영의 基本이 되는 家事 能力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나를 測定하므로서, 家政學教育에 參考資料를 얻고자 한다.

- (1) 女大生들의 食生活의 經驗 및 實際處理能力에 關한 測定
- (2) 女大生들의 衣生活의 經驗 및 實際處理能力에 關한 測定
- (3) 女大生들의 家庭管理에 對한 經驗 및 實際能力에 關한 測定
- (4) 女大生들의 家庭經營에 對한 態度 測定

Ⅲ. 方 法

A. 調査方法

1) 標 本

本研究의 調査對象은 家政學專攻者를 除外한 3, 4學年 女大生으로서, 標本으로 淑大, 梨大, 聖心女大, 誠信師大, 德成女大, 漢陽大, 延大, 高大, 캐도릭기숙사생 등에서 比例配分하여 任意抽出하였다.

2) 道 具

質問紙를 使用하였다(附錄參照).

3) 調 査

a. 豫備調査

1973年 9월에 淑明女子大學校, 家政大學, 3學年生을 對象으로 實施하였다. 衣類專攻, 食品營養學專攻, 家庭管理學 專攻學生들에게 家政學을 專攻하지 않은 女大生으로서 장차 家庭主婦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家事능력을 食생활, 衣生活, 家庭管理에 關해 各各 10問項을 自由反應式으로 提出케 하여 頻度數가 가장 많은 것부터 선정하여 專門分野 教授들의 檢討와 助言을 받아 問項을 作成하였다.

b. 本調査

1973年 10月 10일부터 同月 20日까지 實施 完了하였다.

4) 處理方法

家事處理能力을 評價하기 위하여 食生活, 衣生活, 家庭管理別로 各各 約 20個의 基本的인 問項을 提示하여, 各問項別로 나타난 反應(무경험, 경험, 능력)을 區分, 百分率로 換算比較하였으며, 各個人의 家事處理能力 水準을 알아보기 爲하여 個人別 反應의 平均値를 計算하고, 이들을 比較檢討하였다. 本研究中 計算은 東國大學校 附設 電子計算所에 設置된 IBM-1130 System에 依하였음을 밝혀둔다.

B. 本研究的 制限點

1. 問項의 內容으로 보아 女大生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어야 될 項目이므로 실제로는 할 수 없어도, 反應을 回避하거나, 適當히 答하므로써 일어날지도 모르는 調査의 不正確性.
2. 家事處理事項은 多樣한 反面에, 여러가지 制約性으로 因하여 各 20問項 程度에 局限시켜 조사한 點.
3. 家事處理의 性質上 實際實習에 의한 能力을 評價하지 않고, 質問에 對한 反應에만 基礎를 두었다는 點.

IV. 結果 및 解釋

1. 應答者의 學年別 및 專攻別 分布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 a) 學年別 분포는 3학년생 382名(65.8%)과 4학년생 199名(34.2%)이다.
- b) 전공學科別 분포는 18개 學科로 577名과 기타 4명을 합하여 581名이다.

〈表 1〉 應答者의 專攻別 分布

전공별(학과별)	명수	Percent	전공별(학과별)	명수	Percent	전공별(학과별)	명수	Percent
국문학과	80	13.6	화학	13	2.3	미술학과	65	11.2
영문학과	58	10.0	교육학과	29	5.0	음악과	31	5.2
불문학과	19	3.3	경제학과	19	3.3	체육과	26	4.5
사회사업학과	3	0.5	무역학과	20	3.4	약학과	76	13.1
사학과	45	7.7	간호학과	15	2.6	기타	4	0.7
정의과	23	4.0	계약학과	13	2.3			
물리학과	30	5.2	응용미술과	12	2.1	합계	581	100.0

2. 女大生들의 家庭經營에 對한 態度를 分析하면, 다음 表 2와 같다.

〈表 2〉 문항별 응답표 (1~6) () 안 숫자는 %

문항별 응답별	0	1	2	3	4	合 計
문항 1	8 (1.37)	40 (6.88)	314(54.04)	219(31.69)	/	518(100.00)
문항 2	3 (0.52)	41 (7.06)	141(24.27)	210(36.14)	186(32.01)	518(100.00)
문항 3	2 (0.34)	341(58.69)	115(19.79)	123(21.17)	/	518(100.00)
문항 4	10 (1.72)	303(52.15)	157(27.02)	42 (7.23)	69(11.88)	518(100.00)
문항 5	9 (1.55)	312(53.70)	34 (5.85)	226(38.90)	/	518(100.00)
문항 6	12 (2.07)	121(20.83)	353(60.76)	95(16.35)	/	518(100.00)

문항 1. 직장과 結婚生活에 관한 態度의 反應은 全體의 54%가 結婚과 同時에 職場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37%가 職場과 家庭을 兩立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7%는 처음부터 직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문항 2. 현재 家庭살림에 관한 關心度는 關心을 가지고 助力한다가 36%로 가장 높고, 關心은 있으나 參與할 機會가 없다가 32%, 關心은 있으나, 參與하기가 귀찮다가 24%, 關心이 없다가 7%로 나타나 關心度에 비해 參與度가 大端히 낮다.

문항 3. 結婚前 家事處理能力에 관한 態度는 結婚前에 갖추어야 한다가 5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結婚生活을 통하여 習得한다가 21%이며, 別로 問題가 안된다가 20%로 나타났다.

문항 4. 家事處理에 있어서 理論과 實際에 관한 反應은 兩者 共히 必要하다가 52%, 이론은 別로 問題가 안되고, 經驗으로 習得하는 것이 重要하다가 27%이며, 이론과 實習은 학교보다 家庭에서 배우면 된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문항 5. 가정경영자로서의 學歷은 大學卒業者가 高校卒業者보다 더 有能하다가 59%이며 學歷에 拘得 받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문항 6. 結婚生活에서 家事處理能力으로 비쳐지는 問題點에 對한 反應은 困難이 別로 없을 것이다가 60%, 困難을 느낄 것이다가 20%, 自信이 있다가 16%로 나타났다.

이러한 反應은 家事處理問題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作業에는 熟練이 必要하며, 熟練이 되어 있어야만 作業을 浪費없이 할 수 있다. 經驗이 不足한 사람은 家事處理의 手筈에 비해 結果가 좋지 않으며, 計劃대로 일을 하기가 困難하다. 家事의 能率化의 第一은 技術의 熟練에 있다. 聯關性的의 要素를 가진 두가지 일들 사이에는 하나의 作業으로 養成된 訓練이 他的의 일에도 轉換되는 것이다. 그러나, 女大生들은 恒常 家事는 家庭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므로, 해보지 않고도 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 2에서 "0"는 無應答 "1,2,3,4"는 應答를 表示하며, 問題의 具體的 內容은 脚註를 참고함.

〈表 3〉 家庭經營問題中 重要한 主부의 역할 (3가지) () 안 숫자는 %

역 할	응답별(順)				
	0	1	2	3	합 계
① 食생활과 의생활	345(59.38)	36(6.20)	70(12.05)	129(22.20)	581(100)
② 육아와 아동교육	66(11.36)	150(25.82)	269(46.30)	96(16.52)	581(100)
③ 가족간의 인간관계	79(13.60)	329(56.63)	105(18.07)	68(11.70)	581(100)
④ 가정경제 운영 및 저축	256(44.06)	44(7.57)	74(12.74)	206(35.46)	581(100)
⑤ 주택의 운영과 관리	523(90.02)	7(1.20)	12(2.07)	36(6.20)	581(100)
소 계	1,269	566	530	535	2,905

문항 7. 주부의 役割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家族間의 人間關係問題로 56%이며, 2位가 育兒와 아동의 敎育으로 46%이며, 3位가 가정경제의 運營과 貯蓄의 問題로 35%로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는 近年 生産技術의 革新에 隨伴하여 家庭生活에도 큰 變動이 일어나고 있다. 家事에도 社會的 生産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社會化되는 傾向이 強하다. 이러한 結果로 家事가 技術的인 勞動과 筋肉勞動의 部分에서 벗어지는 問題보다, 人間問題로 일어나는 問題解決이 더 어려워며, 卽 施設이나 其他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도 人間自身이 不幸을 느낄 때는 家庭生活에서 幸福이나 價値를 求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食生活

食生活에 있어서, 女子大學生이 “할 수 있다”의 反應을 첫째로 많이 나타낸 것은 家族의 營養問題를 考慮하여 食單을 짤다로 약 37%이며, 둘째로는 불고기를 할수 있다로 약 35%이며, 셋째로 장출임을 할수 있다로 약 33%이며, 넷째가 딸기잼으로 약 31%이며, 다섯째가 시금치·숙주나물을 할수 있다로 약 30%이다.

- (1) ① 졸업 후 직장을 갖지 않고 결혼하여 주부노릇하기를 원한다.
- ② 졸업 후 직장을 가진 후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노릇하기를 원한다.
- ③ 졸업 후 직장을 가진 후 결혼하여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 (2) ① 현재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다.
- ② 현재 집안 살림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하기가 귀찮다.
- ③ 현재 집안 살림에 관심을 가지고 조력한다.
- ④ 현재 집안 살림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다.
- (3) ① 결혼 전에 가사처리에 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결혼 전에 가사처리에 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
- ③ 가사처리 능력은 결혼생활을 통하여 습득하면 된다.
- (4) ① 가사처리는 이론과 실제적인 능력 두가지가 필요하다.
- ② 이론으로 아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가사처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 ④ 가사처리에 관한 이론과 실습은 가정에서 배우면 된다.
- (5) ① 가정경영자로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졸업자가 고등학교졸업자보다 더 유능하다.
- ② 가정경영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대학졸업자보다 더 유능하다.
- ③ 가정경영자로서는 학력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 (6) ① 나는 결혼하면 가사처리 능력 때문에 곤란을 느낄 것이다.
- ② 나는 결혼하여도 가사처리 능력 때문에 곤란을 별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 ③ 나는 결혼하면 가사처리에는 자신이 있다.

〈表 4〉 식 생 활 () 안 숫자는 %

問番	設 問 內 容	無 應 答	안해보았다	해보았다	할 수 있다	합
1	쌀의 양을 제량하여 밥을 짓는다.	60(10.33)	77(13.25)	278(47.85)	166(28.57)	581(100)
2	국수 및 장국울 한다.	14 (2.41)	180(30.98)	226(38.90)	161(27.71)	581(100)
3	만두를 빚는다.	11 (1.89)	71(12.22)	367(63.17)	132(22.72)	581(100)
4	만두속과 겹질을 만든다.	11 (1.89)	125(21.51)	286(49.23)	160(27.54)	581(100)
5	국을 끓인다(맑은 장국, 된장국)	9 (1.55)	143(24.61)	250(43.03)	179(30.81)	581(100)
6	배추쪽김치를 담근다.	80(13.77)	235(40.45)	148(25.47)	118(20.31)	581(100)
7	깍두기, 열무김치를 담근다.	8 (1.38)	245(42.17)	174(29.95)	154(26.51)	581(100)
8	나박김치, 동치미를 담근다.	10 (1.72)	357(61.45)	97(16.70)	117(20.14)	581(100)
9	시금치, 숙주나물을 무친다.	8 (1.38)	70(12.05)	324(55.77)	179(30.81)	581(100)
10	멸치 킷고추졸임을 한다.	10 (1.72)	100(17.21)	300(51.64)	171(29.43)	581(100)
11	생선졸임을 한다.	9 (1.55)	130(22.38)	274(47.16)	168(28.92)	581(100)
12	장졸임을 한다.	11 (1.89)	179(30.81)	199(34.25)	192(33.05)	581(100)
13	불고기를 한다.	10 (1.72)	94(16.18)	271(46.64)	206(35.46)	581(100)
14	잡채를 한다.	13 (2.24)	179(30.81)	218(37.52)	171(29.43)	581(100)
15	전유어를 부친다.	12 (2.07)	100(17.21)	311(53.53)	158(27.19)	581(100)
16	김밥, 유부초밥을 만든다.	11 (1.89)	100(17.21)	301(51.81)	169(29.09)	581(100)
17	카레라이스를 만든다.	11 (1.89)	48 (8.26)	349(60.07)	173(29.78)	581(100)
18	도너스를 만든다.	16 (2.75)	134(23.06)	274(47.16)	157(27.02)	581(100)
19	미음 및 죽을 쑤다.	12 (2.07)	199(34.25)	220(37.87)	149(25.65)	581(100)
20	찜(말기, 사과, 복숭아)을 한다.	11 (1.89)	163(28.06)	224(38.55)	183(31.50)	581(100)
21	생강차를 끓인다.	12 (2.07)	124(21.34)	285(49.05)	160(27.54)	581(100)
22	포도주를 담근다.	11 (1.89)	277(47.68)	138(23.75)	155(26.68)	581(100)
23	오이지를 담근다.	12 (2.07)	336(57.83)	98(16.87)	135(23.24)	581(100)
24	송편을 빚는다.	14 (2.41)	38 (6.54)	405(69.71)	123(21.17)	581(100)
25	영양문제를 고려하여 식단을 짠다.	13 (2.24)	250(43.03)	103(17.73)	215(37.01)	581(100)

以上の結果로 비추어 볼 때, 家族의 榮養問題를 考慮하여 食단에 關하는 問項은 理論的인 性格의 問題인데, 이 問題를 가장 많은 學生이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家事面에서 實際的 技能을 要하는 것보다 理論的인 것에 自信을 가지고 있는 것이 多실히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 此外에 것도 調理方法이 單純하며 技能이 別로 要하지 않는 것에 自信을 보였다.

“해보았다”로 經驗의 程度를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은 “송편을 빚어보았다”로 약 70%이며 둘째로는 “만두를 빚었다”로 약 63%이며, 셋째가 “카레라이스를 만들었다”로 60%이며, 넷째로 시금치·숙주나물로 약 56%이며, “전유어를 만들었다”가 다섯째로 약 54%로 나타났다.

以上の結果로 볼 때, 송편과 만두는 名節飲食으로 또한 손이 많이 必要하므로 助力을 해야 할 機會가 많은데서 由來된 結果로 풀이 되며, 카레라이스는 高校 때에 家事實習時間에 만들어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안해보았다”로 가장 많이 反應을 보인 것은 “나박김치·동치미를 담근다”로 약 61%이

며, 두번째가 오이지로 약 58%이며, 셋째가 “포도주를 담근다”로 약 48%이며, 넷째가 家族의 榮養問題를 考慮하여 식단을 짠다로 약 43%이며, 각두기·일부김치가 다섯째로 약 42%이며, 여섯째가 배추쪽김치로 약 40%로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를 풀이해 보면, 김치종류는 每日하는 음식이 아니므로 해볼 수 있는 機會가 적으며, 또 實際作業의 量이 많이 必要하므로 家庭에서 機會를 주지 않는대서 오는 傾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치는 우리 食生活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식인데 장차 主婦가 될 女大生이 안해보았다가 많다는 것은 反省과 再考의 餘地가 있으며, 家族의 榮養問題를 考慮하여 식단을 짠다는 問項의 할 수 있다는 反應이 가장 많은데 比하여, 反面 안해보았다가 많다는 것은 平素에 우리 食生活이 식단을 짜지 않고 行하여지기 때문에 생각된다.

2. 衣生活

〈表 5〉 의 생 활 () 안 숫자는 %

問番	設 問 內 容	無 應 答	안해보았다	해보았다	할 수 있다	計
1	재봉틀을 한다.	55(9.47)	128(22.03)	283(48.71)	115(19.79)	581(100)
2	재봉틀의 간단한 교장수리를 한다.	9(1.55)	375(64.54)	128(22.03)	69(11.88)	581(100)
3	부라우스, 스컬 및 바지를 Pattern 을 이용하여 만든다.	13(2.24)	380(65.40)	104(17.90)	84(14.46)	581(100)
4	지퍼를 단다.	12(2.07)	160(27.54)	269(46.30)	140(24.10)	581(100)
5	큰 옷과 헌옷을 줄이거나 수선한다.	50(8.61)	217(37.35)	226(38.90)	88(15.15)	581(100)
6	애기의 잠옷, 치마, 바지, 킷피스를 만든다.	13(2.24)	414(71.29)	80(13.77)	74(12.74)	581(100)
7	환복 저거리의 동정을 단다.	11(1.89)	311(53.53)	169(29.09)	90(15.49)	581(100)
8	치마주름을 잡고 허리를 단다.	10(1.72)	337(58.00)	132(22.72)	102(17.56)	581(100)
9	버선을 뒤집는다.	12(2.07)	322(55.42)	152(26.16)	95(16.35)	581(100)
10	코바늘로 화병 받침, 테블센터를 뜬다.	13(2.24)	128(22.03)	313(53.87)	127(21.86)	581(100)
11	원하는 형을 책에 따라 코바늘로 뜬다.	14(2.41)	264(45.44)	176(30.29)	127(21.86)	581(100)
12	장갑, 양말을 뜬다.	14(2.41)	240(41.31)	224(38.55)	103(17.73)	581(100)
13	세탁 조끼를 뜬다.	10(1.72)	319(54.91)	168(28.92)	84(14.46)	581(100)
14	이불호칭과 버개잇을 단다.	10(1.72)	77(13.25)	345(59.38)	149(25.65)	581(100)
15	집안식구의 옷을 세탁한다.	12(2.07)	21 (3.61)	387(66.61)	161(27.71)	581(100)
16	다리미질을 한다.	14(2.41)	14 (2.41)	391(67.30)	162(27.88)	581(100)
17	옷의 선택과 장소에 따라 가려 입는다.	15(2.58)	13 (2.24)	339(58.35)	214(36.38)	581(100)
18	빨래 푸세 손질을 한다.	12(2.07)	159(27.37)	255(43.89)	155(26.68)	581(100)
19	케물을 이용하여 쿠션과 완구를 만든다.	11(1.89)	338(58.18)	106(18.24)	126(21.69)	581(100)
20	수를 놓아 벽걸이나 액자틀 만들어 장식한다.	12(2.07)	134(23.06)	318(54.73)	117(20.14)	581(100)

衣生活에 있어서, 女大生이 “할 수 있다”로 가장 많은 反應을 보인 것은 自身の 옷을 선택하고, 옷을 대와 場所에 맞게 가려 입는대로 약 37%이며, 둘째가 自身の 옷과 家族의 옷을 다림질할 수 있다로 약 28%이며, 셋째가 自身の 옷과 家族의 옷을 洗濯할 수 있다로 약 27%이며, 넷째가 빨래에 汚穢손질을 할 수 있다로 약 27%이며, 다섯째가 이불호칭이나 베틀을 시칠 수 있다로 약 26%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할 수 있다에 가장 적은 反應을 나타낸 것은 첫째가 재봉틀의 간단한 故障 修理한다로 약 12%이고, 둘째가 아이들의 잠옷·앞치마·바지·원피스를 할 수 있다로 약 13%이며, 셋째가 대바늘이나, 아후강으로 조끼나 세타를 뚫 수 있다로 약 14%이며, 넷째가 부라우스·스커트·바지를 패턴(Pattern)을 利用하여 만들 수 있다는 약 15%이며, 큰 옷을 줄이거나 해진 옷을 修繕한다가 약 15%이며, 다섯째가 한복저거리에 등전을 단다가 약 15.5%로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로 미루어 볼 때 衣生活에 있어서 女大生이 할 수 있는 것은 自己의 옷을 선택하거나, 다림질하거나 세탁하거나 等の 特別한 技能을 要하지 않는 程度의 것뿐이며, 技術을 要하는 것은 아주 낮게 나타나, 全般的으로 衣生活面의 能力이 아주 不足한 것으로 思料된다.

3. 家庭管理

家庭管理에 있어서, 女大生들이 “할 수 있다”로 가장 많은 反應을 보인 것은 家具選擇을 집에 어울리게, 用途에 맞게 할 수 있다로 약 35%이며, 둘째로 照明器具를 用途와 房의 雰圍氣에 맞게 選擇할 수 있다로 약 33%이며, 셋째로는 커튼지의 색이나, 페인트의 色을 선택할 수 있다로 31%이며, 넷째가 房의 構造에 맞추어 家具의 配置를 할 수 있다로 약 30%이며, 다섯째가 집 構造의 不便한 點을 指摘하여 改造한다로 약 29%로 나타났다.

또, “안해보았다”로 가장 많은 反應을 보인 것은 방바닥에 니스칠을 한다와 페인트칠을 한다로 약 59%이며, 둘째로는 故障난 가구를 簡單히 修理한다로 58%이며, 셋째로는 “책꽂이, 편지꽂이, 휴지통등을 만든다”로 약 42%이며, 넷째로 “도배를 한다”로 40%로 나타났다.

끝으로 “해보았다”로 가장 많은 反應을 보인 것은 “조카나 동생의 指導를 위하여·議論 相對가 된다”로 60%이며, 둘째로는 방의 구조에 맞게 가구를 배치한다로 56%이며, 셋째로 “素材를 선택하여 꽃꽂이를 한다”로 약 53%이며, 넷째로 “벽지 선택을 한다”로 약 51%이며, 다섯째로 “花壇을 가꾼다”로 약 48%로 나타났다.

以上の 結果로 미루어볼 때, 作業보다는 理論을 適用해 보는 것에 置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實際技術을 要하는 것에는 아주 能力이 缺如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家庭管理의 問項 20은 消費와 購買者로서의 合理的인 購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

〈表 6〉 가 정 관 리 () 안 숫자는 %

問番	設 問 內 容	無 應 答	안해보았다	태보았다	할 수 있다	計
1	벽지를 선택한다.	58(9.98)	97(16.70)	299(51.46)	127(21.86)	581(100)
2	도배를 한다.	11(1.89)	234(40.28)	223(38.38)	113(19.45)	581(100)
3	방바닥에 니스칠을 한다.	12(2.07)	344(59.21)	108(18.59)	117(20.14)	581(100)
4	문창호지를 바꾼다.	10(1.72)	171(29.43)	271(46.64)	129(22.20)	581(100)
5	페인트를 칠한다.	12(2.07)	344(59.21)	103(17.73)	122(21.00)	581(100)
6	전기의 휴스를 연결한다.	13(2.24)	315(54.22)	161(27.71)	92(15.83)	581(100)
7	화단을 가꾼다.	12(2.07)	131(22.55)	276(47.50)	162(27.88)	581(100)
8	소재 선택을 하여 꽃꽂이를 한다.	12(2.07)	108(18.59)	307(52.84)	154(26.51)	581(100)
9	간단한 가구를 만든다 (휴지통, 책꽂이)	54(9.29)	243(41.82)	160(27.54)	124(21.34)	581(100)
10	가구를 집에 맞추어 선택한다.	18(3.10)	160(27.54)	199(34.25)	204(35.11)	581(100)
11	가정 기구를 소개하여 구입토록 한다.	15(2.58)	158(27.19)	272(46.82)	136(23.41)	581(100)
12	카운셀러가 된다(동생, 조카에게)	15(2.58)	91(15.66)	346(59.55)	129(22.20)	581(100)
13	가구를 조화있게 배치한다.	15(2.58)	64(11.02)	324(55.77)	178(30.64)	581(100)
14	집구조를 개조하여 편리하게 한다.	14(2.41)	211(36.32)	190(32.70)	166(28.57)	581(100)
15	조명기구를 선택한다.	14(2.41)	144(24.78)	234(40.28)	189(32.53)	581(100)
16	색의 선택(페인트, 커튼)	15(2.58)	97(16.70)	288(49.57)	181(31.15)	581(100)
17	물품을 예산에 맞추어 구입한다.	18(3.10)	115(19.79)	280(48.19)	168(28.92)	581(100)
18	고장난 가구를 수리한다.	19(3.27)	336(57.83)	137(23.58)	89(15.32)	581(100)
19	자신의 금전출납부를 사용한다.	15(2.58)	174(29.95)	282(48.54)	110(18.93)	581(100)

보기 위하여 市內 5個 代表的인 市場(東大門, 南大門市場, 서울驛의 中央市場, 京東市場, 中部市場)과 各各 市場과 關連을 가진 代表的 商品을 맞추어 보도록 한결과 올바른 反應을 나타낸 것은 中央市場(生鮮)의 경우 100% 적중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南大門市場(衣類)의 경우 적중률 83%이며, 셋째로 京東市場(고추·마늘)의 경우 61%의 적중률을 보였으며 넷째로 中部市場(乾魚物)의 경우 약 48%이고, 東大門市場(織物類)의 경우 약 28%의 적중률을 보였다.

〈表 7〉 家事能力의 개인별 平均値

區分	平均問項數	無 應 答	안해보았다	태보았다	할 수 있다
食 生 活		0.7	6.8	10.5	7.0
衣 生 活		0.6	7.5	7.9	4.1
家 庭 管 理		0.6	6.1	7.7	4.6

4. 個人別 家事處理能力을 評價하기 위하여 食生活, 衣生活, 家庭管理의 各各의 問項의 答數別 平均値를 求하여본 결과 다음 <表 7>과 같다.

食生活에 있어서 25問項中 女大生들이 안해보았다와 해보았다가 平均値는, 할 수 있다와 거의 비슷하여 약 7개로 나타났으며, 해보았다가 약 10.5개로 나타났다.

衣生活에 관해서는 20問項中 안해보았다와 해보았다가 비슷한 數로 약 8問項이며, “할 수 있다”가 4問項으로 가장 낮다. 또 家庭管理의 경우 19問項中 “안해보았다”가 約 6問項, “해보았다”가 約 8問項, “할 수 있다”가 約 5問項으로 算出되었다.

全體的으로 볼때, 할 수 있다가 가장 낮은 편으로 實際能力이 微弱함을 드러내었으며, 안해보았다가 比較的 많아 平素家事的 參與度가 지나치게 적다는 傾向을 指摘해 준다.

V. 結 論

現代는 情報時代로서, 實際經驗에 비해 代理的 經驗의 比率이 높아지므로서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實際生活의 問題를 정말 하게 될 때는 熟練의 不足으로 할 수 없는 傾向이 너무나 많다.

本研究에서도 食生活·衣生活·家庭管理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問項을 作成하여 女大生들의 家事能力을 測定하여 본 結果 食生活에서 25問項中 “할 수 있다”의 平均問項이 7問項 程度이며, “안해보았다”가 7問項이라는 結果는 너무 지나칠 程度의 能力不足이며, 例컨데, 問項中 “食口數에 알맞게 쌀을 計量하여 밥을 짓는다”에서 할 수 있다가 약 28%이며, “안해보았다”가 13%로 나타나 점과, 국수장국의 경우 안해보았다가 약 31%, 맑은 장국이나, 된장국의 경우 안해보았다가 약 25%, 생선죽임을 안해보았다가 약 22%, 잡채의 경우 안해보았다가 약 31%나 된다는 點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衣生活 20問項中 “할 수 있다”의 平均問項이 約 4問項程度이며, 例컨데, 裁縫틀에서 “할 수 있다”가 約 22%이며, “안해보았다”가 약 20%로 나타난 點은 또한 놀라운 事實이다. 例컨데 裁縫틀은 女大生이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안해보았다가 20%나 된다는 事實은 平素의 家庭教育이나, 家政科教育이 疑心스러울 程度이다. 지퍼를 단디에서 “안해보았다”가 約 27.5%, 한복저코리의 동정을 안달아 보았다가 약 54%나 되며, 장갑·양말 등을 뜯다에서 “안해보았다”가 41%나 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以上の 事實은 衣生活의 가장 基礎的인 事項으로 女大生 3. 4學年이던, 으레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안해보았다는 比率이 높게 나타난 것은 注目할만한 問題이다.

家庭管理 19問項中 “할 수 있다”의 個人別 平均問項이 約 5問項 程度이며, 例컨데, 物品을 豫算에 맞추어 購入한다에서 “안해보았다”가 약 20%, 自身の 용돈을 金錢出納簿를 만

들어 使用한다에서 “안해보았다”가 約 30%나 된다는 點… 등은 家事面에 平素에 너무 等閑히 하여 왔다는 것이 如實히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家庭生活에서 家庭婦를 두기는 아주 어려운 現實에 비추어볼 때, 家事가 아무리 社會化, 機械化된다고 하더라도 主婦自身이 어느 程度의 基礎能力이 具備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家庭科教育과 家庭人으로서의 必要한 家庭教育, 女大生 自身에서 많은 問題點이 있으며,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家庭生活이란 個人 및 家族의 衣·食·住, 其他의 基本的 慾求를 充足시켜야 하며, 育兒 및 經濟에 關한 配慮와 家族의 人格의 交涉等이 얽혀져 있는 形態로 行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家庭生活을 營爲하여 가려면 많은 理解·知識·態度·習慣·能力·技能等を 必要로 하며, 또한 家庭은 生活하는 場所이므로 理論에 못지않게 實際的인 能力이 必要한데 現在는 機能面을 너무 소홀히 하는 傾向이 本研究를 通하여 더욱 分明해졌다. 卒業後 61%가 장차 主婦의 役割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結婚前에 家事處理能力을 갖추어야 할다가 58%로 나타났 다. 家事能力도 단번에 갖추어지기는 너무 어려운 點이 많이 있으며 家事擔當 以外에도 主婦가 家庭經營에서 해야 할 일은 多樣하며, 어려운 點이 많이 있는데, 家事處理能力마저 갖추지 못하였을 때 부디치게 될 家庭問題는 자못 심각하고 重要하다. 그러므로, 家庭에서 는 女大生들에게 家庭人으로서의 教育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女大生 自身들도 너무 理論과 知識面에만 偏重된 自身の 결핍을 알고, 女性으로서, 主婦로서 갖추어야 할 點에 注意를 傾注해야 할 것으로 보며, 各家庭에서도 女大生에게 可能한한 더욱 많은 家事 參與의 機會를 주어 技能을 갖추도록 힘써야 겠다.

註

1. 李仁喜, 家庭經營과 管理, (서울, 修學社, 1972) p. 9.
2. 青木茂, 新家庭學原論, (東京, 中教出版社, 1970) pp. 409-411.
3. 籠山京, 新家庭管理學, (東京, 光生館, 1972) p. 74.
4. 山本キク, 新版家庭經營, (東京, 同文書院, 1971) pp. 74~75.
5. Paulena Nickell & Jean Muir Dorsey, Management in Family Living, (New York, John-Wiley, 1967) pp. 32-49.

參 考 文 獻

- [1] 李仁喜 著, 家庭經營과 管理(서울, 修學社, 1972)
- [2] 籠山京著(6人 共著), 新家庭管理學(東京, 光生館, 1972)
- [3] 野口サキ·大阪巳年子 共著, 家庭管理學(東京, 朝倉書店, 1970)
- [4] 山本キク 著, 新版 家庭經營學(東京, 同文書院, 1971)
- [5] 青木茂 編著, 新家政學原論(東京, 中教出版社, 1970)
- [6] by Paulena Nickell & Jean Muir Dorsey, Management in Family(New York, John-Wiley, 4Ed, 1967)